

2021년 5월 26일

케이뱅크, 1조 2천억원대 인터넷은행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 결정

국내 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약 1조 2,499억원의 (1억9,229만주)의 유상증자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은행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이를 통해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발판 마련하고, '22년 연간 흑자전환과 '23년 IPO 추진이라는 로드맵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케이뱅크에 대한 잠재력과 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총 발행 신주 중 7,250억원 규모는 신규 투자자 대상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조: 별첨1) 특히 이번 증자에는 글로벌 사모펀드들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시장 강자인 컴투스도 500억원 규모로 참여하여 금융과 게임 기반 콘텐츠 산업의 융합 시너지 창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나머지 5,249억원 규모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배정 기준일인 다음달 10일 현재 주주별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요 주주 중심으로 실권주를 인수해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는 6,500원으로 지난 증자 대비 30%가 할증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증자가 마무리 되면 케이뱅크의 납입 자본금은 9,017억원에서 2조 1,515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며, 동종업계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2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케이뱅크는 작년 7월 4천억원 증자 이후 인터넷은행 최초 아파트 담보대출, 업비트 제휴 등 혁신적인 상품과 제휴로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며 금융 ICT 혁신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21년 1월부터 4개월만에 약 350만명이 급증하며 누적 고객 수는 5월중에 600만명이 돌파하였고, MAU(Monthly Active User) 비율도 작년 6월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확대에 따른 획기적인 여/수신고 성장으로, '21년 1분기 당기 손실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절반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참조: 별첨 2, 3)

또한, 지난 2월에는 금융전문가인 서호성 행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며 케이뱅크의 미래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확충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금융의 기본사업인 예대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과의 제휴, 그룹사 시너지 강화를 통해 상품 라인업과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ICT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여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시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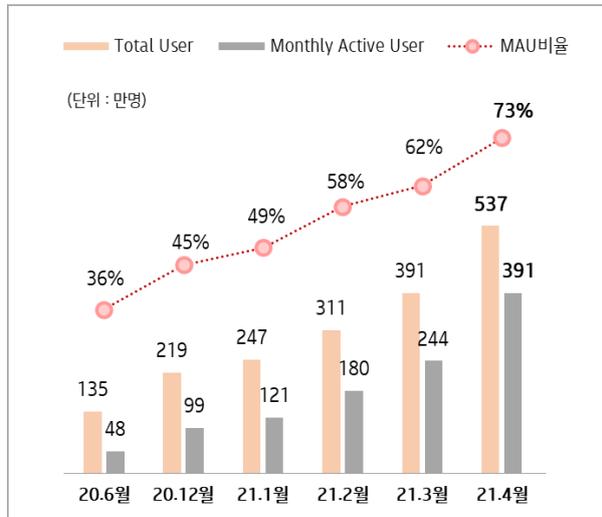
Digico KT의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케이뱅크 성장 스토리는 투자자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신규 투자자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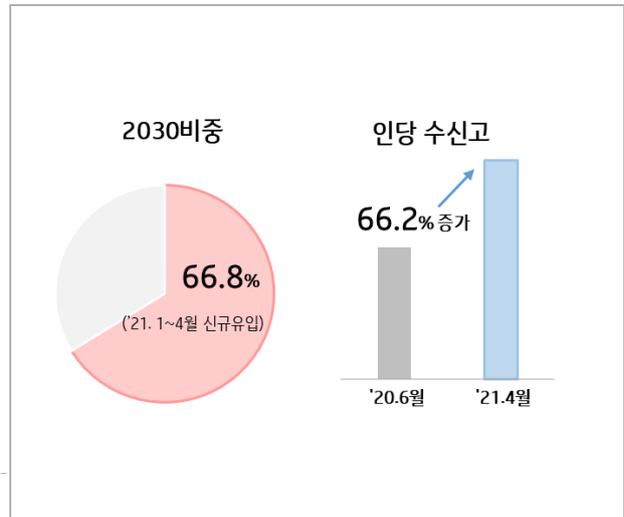
신규 투자자	규모	신주수
MBK파트너스	2,000억원	3,077만주
베인캐피탈	2,000억원	3,077만주
MG새마을금고가 대표 투자자(LP)로 있는 사모펀드	1,500억원	2,308만주
JS프라이빗에쿼티와 신한대체투자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Co-GP)으로 결성한 사모펀드	1,250억원	1,923만주
컴투스	500억원	769만주

[별첨2. 케이뱅크 고객수 및 활성화율]

[고객 및 활성화율(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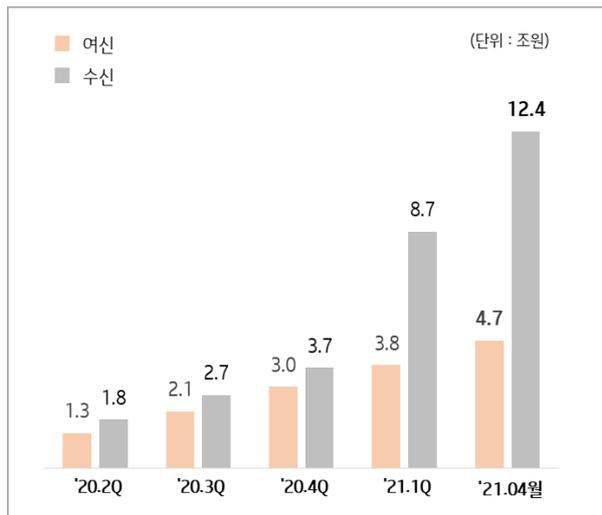


[유입고객 Profile(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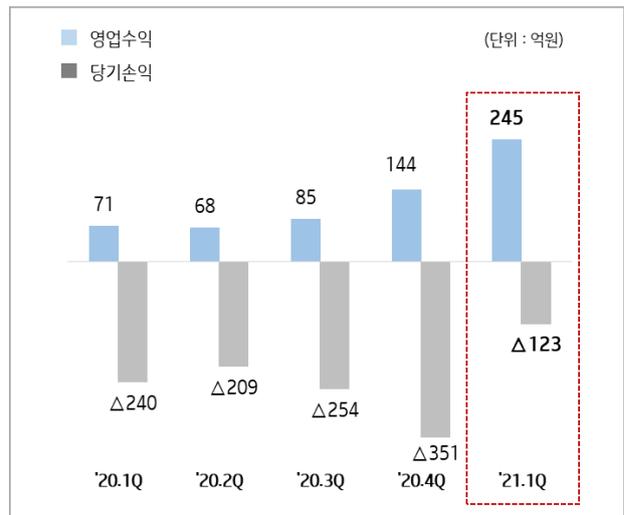


[별첨: 여수신 및 손익 추이]

[여수신 추이]



[손익 추이]



※ 본 자료에 서술된 재무, 영업실적 등은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측정보는 시장환경 변화, 회사의 전략수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약정, 투자결정 등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